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정치국회의가 11월 3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시었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 회의를 사회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조용원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가 보고를 제기하였다.

보고에서는 올해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집행실태가 개괄분석되고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에 상정할 주요의정들이 제기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혁명의 전진도상에

도래한 2022년의 대내외적환경은 우리의 의지와 전투력을 시험하는 사상초유의 역경이었지만 당중앙의 정확한 령도력에 의하여 국가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새로운 국면이 열리고 나라의 국위와 국광이 새로운 경지로 상승한데 대하여 언급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당건설과 국가사업전반에서 일어난 긍정적변화들을 증폭시키며 새년도의 방대한 과업들을 기백있게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각 부문에서 한해 투쟁과정에 축적된 경험과 교훈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의 잠재력

한 포치가 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전원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을 전원찬성으로 채택하였다.

본시기자

으로 해결할수 있는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찾아 명년도계획을 잘 확정하는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었다.

원수님께서서는 2023년은 공화국 창건 75돐과 조국해방전쟁승리 70돐이 되는 력사적인 해인 동시에 5개년계획 완수의 결정적담보를 구축해야 하는 중요한 해이라고 하시면서 올해보다 더 큰 승리와 성과로 빛내여야 할 새년도 당과 국가의 주요정책 집행을 위한 작전을 력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수립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에 대하여 결론하시었다.

회의에서는 전원회의준비사업과 관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에 즈음하여 공화국공군무력의 대규모비행총출동작전에 참가한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만나시고 축하격려해주시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항공절을 맞으며 지난 11월 4일 3시간 47분에 걸쳐 각종 전투기 500대를 동원한 공군비행대의 총전투출동작전에 직접 참가하였던 5개 사단 20여개 편대안의 비행사 705명을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 불러주시고 따듯이 축하격려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중앙의 명령일하에 적들의 대규모합공중추련에 대한 견결한 대응의지와 압도적인 전투정신을 안고 대규모비행총출동작전을 성과적

으로 단행함으로써 주체조선의 투철한 대 적정신과 무적필승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하는데 공헌한 공군 지휘성원들과 비행사들을 항공절에 즈음하여 수도 평양에 불러주시고 크나큰 특전과 특혜를 베풀어주시었다.

위대한 당중앙이 안겨준 불굴의 전투정신을 피뎌는 심장마다에 만장약하고 적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질에 섬멸적인 자폭정신으로 강타를 안긴 자랑찬 군공을 안고 꿈결에도 그리던 당중앙뜨락에 들어선 공군 지휘성원들과 전투비행사들의 가슴가슴은 세찬 격정과 환희로 끓어

번지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재적인 군사적예지와 비범무쌍한 령군술, 강철의 신념과 배짱으로 제국주의폭제를 단호히 제압하시며 성스러운 조국의 절대적국위와 인민의 존엄이 강력한 힘에 의하여 최상의 경지에서 수호되는 강국의 새 전기를 힘있게 펼쳐가시는 회세의 천출명장을 우러러 최대의 경의를 삼가 드리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열광의 환호에 답례하시며 사상 전례없는 대규모의 항공작전에서 당의 전투명령을 신속하고도

완벽한 실천으로 받들어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타승할수 있는 우리 공군의 사상 정신적우세와 더욱 철저히 더욱 무자비한 대적행동원칙, 우수한 실전능력을 만천하에 떨친 미더운 하늘초병들에게 뜨거운 전투적경의를 표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무적의 공중신화는 그 어떤 첨단전투기가 아니라 불굴의 정신으로 무장한 비행사가 창조한다고 하시면서 당의 명령이라면 구름속 천리, 불비속 만리라도 뚫고나가 침략의 아성을 모조리 불마당질해버리는 투철한 주적판, 주체적인 전쟁관을 체질화한 영웅한 비행

사들을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과 조국, 인민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조국의 령공을 결사수호한 인민공군의 혁혁한 무훈은 조국청사에 사변적대승으로 길이 빛날것이라고 하시면서 공군장병들이 앞으로도 열화같은 총성과 무비의 용감성, 영웅적전투정신으로 주체적항공무력의 최전성기를 빛내이며 국방력강화와 국가의 자존사수, 국위선양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기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본시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인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7》형시험발사성공에 기여한 성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지난 11월 18일에 단행된 《화성포-17》형시험 발사에서 커다란 공헌을 세운 붉은기중대 전투원들과 국방과학연구기관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군수공장 로동계급들을 만나시고 력사에 길이 남을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존귀하신 자체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가장 현명한 결심과 탁월한 명도력으로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몸소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주시며 세계최강의 전략무기완성이라는 거대한 사

변으로 우리 공화국의 빛나는 존엄을 억 세계 지켜주시신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의 결출한 수령이신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최대의 영광과 열렬한 호모심을 뜨겁게 분출하며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힘껏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당의 국방건설 로선을 높이 받들고 웅대한 목표를 관철해나가는 투쟁에서 순결한 충실성과 비상한 정신력, 뛰어난 과학기술력으로 이루어낸 거대한 결정체를 세계앞에 당당히 씌울림으로써 날로 장성하는 우리의 군사적강세를 확신케 하고 우리가 비축한 핵전쟁억제력의 가공할 위력을 만방에 힘있게 떨친 미더운 국방전사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정을 담아 뜨거운 전투적답례를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당

의 원대한 강군건설대업을 하나하나 이룩할 때마다 갖은 고생도 모두 인내해내며 당의 위업을 절대지지해준 우리 인민의 충심과 애국심에 고마움을 금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인민의 무조건적인 지지성원속에 떠받들려 태어난 우리의 《화성포-17》형은 분명코 우리 인민이 자기의 힘으로 안아온 거대한 창조물이며 전략적 힘의 위대한 실체이고 명실공히 조선인민의 《화성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언제나와 같이 우리 당의 혁명위업을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받들어 주고 고무하고 떠밀어주며 끝없는 성공을 확신하고 기원해준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힘과 힘에 의한 대결이 곧 승패를 결정하는 오늘의 세계에서 약자가 아닌 제일강자가 될 때라야

만 나라와 민족의 현재와 미래를 지켜낼 수 있다는것은 력사가 보여주는 진리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이룩한 성과에 절대로 자만함이 없이 두손에 억세계 틀어쥔 우리의 초강력을 더욱 절대적인것으로, 더욱 불가역적으로 다져나가며 한계가 없는 국방력강화의 무한대함을 향해 계속 박차를 가해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투쟁목표와 결심이 뚜렷하고 당에 무한히 충직한 국방과 학기술대군과 영용한 군수로동계급이 있으며 우리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는 한 우리의 자위력은 세계최강의 지위에 올라서게 될것이라고 확신하시였다.

원수님께서서는 언제나 자기 위업에 끝없이 충실해온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이 앞으로도 국가핵무력건설위업을 달성해나가는 전진로상에

서 자기들이 지닌 막중한 사명감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무조건적인 관철정신으로 결사분투함으로써 나라의 핵전쟁억제력을 비상히 빠른 속도로 확대강화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믿음과 상상할수 없었던 영광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온 나라가 부러워하는 특전을 자기들에게 거둬들여 돌려주시며 주체적 국방건설의 휘황찬란한 래일에 대한 가슴벅찬 확신을 안겨주시신 김정은원수님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그이께서 안겨주시신 특전과 믿음에 기어 이 보답할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며 우리의 위대한 국가전략무력건설대업을 만대에 굳건히 이어놓을 드높은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기자



12월의 강산에 굶이치는 그리움의 대하

공화국인들의 마음속에 민족의 영원한 태양, 철세위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뜨겁게 갈라드는 12월이다.

산과 들을 보아도, 공장과 농촌 그 어디를 가보아도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숨어있어 어리어오는 12월.

은 나라 인민의 마음은 지금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으로 달려가고 있다.

한겨울 추위속에서도 정성껏 키운 꽃송이, 꽃다발을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정중히 드리며 그이와 마음속대화를 나눈다.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아버지장군님에 대한 인민의 그리움이 더더욱 강렬해지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민이다.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한생이 오로지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진 가장 고귀한 생애이고 그 길에서 이룩하신 업적이 너무도 크고 위대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금도 제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의 나날들을 잊지 못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은 공화국에 있어서 참으로 준엄한 시험의 시기였다. 민족의 대극상을 당하고 혹심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겹쳐들었으며 제국주의련합세력은 사회주의의 《종말》과 《북붕괴론》을 떠들면서 사면팔방에서 이리저리 달려들었다.

남들 같으면 얼백번도 더 주저 않았을 이 엄혹한 시험의 나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민족의 천만년 밝은 미래를 위해 선군장정의 험난한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었다. 숨죽은 공장들과 식량난을 겪는 인민을 두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고통없이 헤쳐가신 그이의 선군장정, 그 길은 보통의 각오와 의지를 가지고서는 헤쳐갈 수 없는 험로역경의 길이었다. 철령

과 오성산의 칼바람길, 풍랑사나운 초도의 배길, 적의 총구가 향시적으로 노리는 판문점...

공화국인민들은 오늘도 오성산이라는 이름을 격정속에 불러보곤 한다.

오성산은 최전연고지들중에서도 제일 높고 험한 고지의 하나로서 여기에 오르자면 152공기의 칼바람길을 뚫아올라야 한다.

주체87(1998)년 8월초 새벽부터 비가 내려 령길이 험하게 그지없던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고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곳은 날씨에 전선의 험한 령길을 다녀보아야 최전연을 지키고있는 병사들의 수고를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미끄러져내리는 야전승용차를 어깨로 미시며 오성산에 오르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후날 그때 일을 회고하시면서 선군정치를 하고 선군의 상징인 오성산이 있어 나라를 지켜왔다고, 오성산

이란 말만 들어도 눈물이 나고 지극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다고 하시었다.

그 누가 내 마음 몰라줘도 몰라준대도 희망안고 이 길을 가고 가리라는 노래를 마음속으로 부르고 또 부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쉬임없이 이어가신 선군의 그 길이 있어 조국의 천리방선은 금성철벽으로 다져지고 공화국은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던 무진막강한 자위적전쟁역력을 위용 떨치게 되었으며 조국과 인민, 사회주의의 운명은 굳건히 수호될수 있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헤쳐가신 선군장정의 길은 인민의 행복과 조국의 번영을 위한 희생적인 헌신의 길이기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 첫사랑은 언제나 사랑하는 인민이 있었다. 하기에 아버지장군님께서

는 한평생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었다. 사랑하는 조국과 인민을 위해 떠난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낮이나 밤이나 쉬임없이 공장과 농촌, 건설장소를 찾아 나라의 방방곡곡을 주름잡으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공장이나 농장에 가면 나의 인민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 길이 비록 힘든 길이지만은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떠나곤 한다고, 인민들이 잘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으면 쌓인 피로도 한시에 사라지고 힘이 솟는다고, 나는 우리 인민을 잘살수 있게 할수만 있다면 고생을 사서라도 하겠다고 하신 아버지장군님의 교시에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바치는데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찾으신 그이의 숭고한 인생관과 뜨거운 인민사랑의 세계가 비껴있다.

진체 인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고초로 힘있게 고무추동한 경제정신과 성장의 봉화, 라남의 봉화,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씨로 된 함남의 불길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초강도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지켜주신 애국헌신의 불길이었다.

한평생 인민행렬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주체98(2009)년 환해에만도 사 계절의 비와 눈을 다 맞으시며 200여개에 달하는 단위를 찾으신다. 인민들을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대진군으로 불러일으키시었다.

인민행렬의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시며 조국땅 방방곡곡을 현지지도하시고 쪽잡과 꿰기밥으로 눈보라강행군, 삼복철강행군, 심야강행군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장군님의 초인간적인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이 땅에는 부

강조국건설의 만년토대가 튼튼히 마련되게 되었다.

주체철수, 주체철, 주체비료가 쏟아지는 대경사가 연이어 일어났으며 나라의 토지가 사회주의 조건의 땅답게 변모되는 천지개벽이 일어났다. 또한 태고적부터 소금밭을 건설할수 없다고 하던 동해안에는 광명성제염소, 원산제염소, 어대진청년제염소와 같은 염전기지가 생겨나고 세인을 놀래우는 CNC기계바다가 펼쳐졌다.

조국의 부흥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위대한 장군님의 헌신의 자욱은 동력기지와 건설생산기지들, 축산, 과수, 양어, 가금, 수산기지를, 정공업기지와 정서생활기지를, 농장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등 공화국의 모든 부문과 단위, 모든 곳곳에 력력히 새겨져있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 의해 마련된 이 땅의 귀중한 재부들과 창조물들은 사회주의

강국건설의 고귀한 밀천, 토대로 되고있다.

인민의 리상과 꿈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신 위대한 장군님께 인민들모두가 간절히 바라고 념원하였다.

잠시라도 휴식하여주시기를, 더는 찬눈길을 걷지 말아주시기를...

하나 위대한 장군님께서 인민의 모든 소원을 다 풀어주시면서도 자신의 안녕을 그토록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만은 언제 한번 풀어주시지 못하시었다.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나날에도 치료를 받으셔야 할 몸이셨으나 상상할수 없는 불련과 아픔을 참고 이기시며 인민을 위해 현지지도의 길에 또다시 오르시었고 달리는 령차에서 순직하신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정녕 위대한 장군님은 평등자로서, 인간으로서 겪을수 있는 온갖 고생과 만난시련을 다 겪으시며 자신을 초월처럼 강고히 불태워 조국의 부강변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신 절세의 애국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었다.

하기에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아버지장군님의 한생은 말 그대로 타고르는 불길이었다고 뜨겁게 말씀하신것 아니랴.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시고 물려주신 조국과 민족의 통성변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있고 아버지장군님 그대로 이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것이 인민의 가슴에 간직된 역척의 신념이고 의지이다.

정녕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과 무궁창창할 이 땅의 미래와 더불어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신다.

본사기자 김철진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을 열어주시어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걸 어온 로정은 위대한 수령님과 로에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핌속에서 언젠가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게 해주실것을 기대하고 있다.

하기에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철세위인들의 손길아래 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떨쳐 총련의 수십년력사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면서 위대한 수령을 모셔 민족의 존엄과 영예도 빛나도록 력사의 진리를 다시금 뜨겁게 새겨안고 있다.

총련이 걸어온 장구하고 영광에 찬 로정을 더듬어볼 때마다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에 의해 주체적인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이 열린듯한 뜻을 내일이 가슴에 사무쳐와 격정을 금치 못하는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이다.

해방전 망국노의 설움을 안고 현해탄을 건너간 인간이하의 천대와 멸시속에서 살인적인 노예살이를 강요당해야만 했던 제일동포들이었다.

조국이 해방된 후에도 제일동포들은 극심한 민족차별에 의해 이역살이의 고달픈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민족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기 위한 그들의 투쟁은 옹바른 로선을 세우지 못한것으로 하

여 고초를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1940년대말~1950년대초에 이르러 제일조선인운동은 일본반동들의 악랄한 탄압과 제일동포들의 민족적 애국투쟁을 저해하는 좌경적로선의 영향으로 하여 커다란 피해를 입고 존망의 길에 놓이게 되었다.

과도에 부대끼는 난과선과도 같이 갈질을 잃고 해메이는 제일동포들의 처지를 누구보다 가슴아파하시며 마사로운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분은 위대한 김일성주석이시었다.

언제나 제일동포들의 운명을 두고 마음쓰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의 운명이 판가름되던 전화의 나날인 주체41(1952)년 12월 2일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해주시어 제일조선인운동을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시었다.

조선사람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더라도 자기 조국과 자기 민족, 자기 나라 혁명을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 이것은 숨겨가던 제일조선인운동을 소생시킨 생명수였고 어둠속을 헤메이던 제일동포들의 앞길을 밝혀준 희망의 등대였다.

제일 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에 접하고 너무나 감격에 겨워 하늘이 떠

나갈듯 환성을 올리였으며 철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하염없이 솟아오르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돌이켜보면 해방된 이듬해 새 조국건설로 그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제일동포들에게 력사적인 서한 《재일 100만동포들에게》를 보내주시어 망국노의 설움속에 일어났던 가슴들에 조산사람이라는 민족적공지를 안겨주시고 제일동포들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철세위인의 뜨거운 동포애가 어린 력사적인 서한의 구절구절은 제일동포들의 가슴속에 알날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고 생의 활력을 부여주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공화국이 창건된 후 조국에 온 제일조선인영축단 성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과 은정은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였던가.

공화국건설을 경축하기 위하여 조국에 온 제일조선인영축단 성원들을 위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해주시고 새 조국건설의 빛나는 성과들을 목격하며 뜻깊은 나날을 보내도록 다신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들은 몸가까이 불러주시고 따뜻한 혈육의 정을 안겨주시며 제일조선인운동과 관련한 강령적교시도 주신 아버지수령님이시었다.

그후에도 조국과 멀리 떨어진 지역땅에서 고생하는 제일동포들의 모습을 항상 마음속 깊이 새겨주시고 그들을 위해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그처럼 어려운 전화의 나날 제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할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해주셨으니 제일동포들의 감격과 기쁨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과 글로 다 전할수 있으랴.

하기에 제일동포들은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떨쳐나섰으며 마침내 1955년 5월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되게 되었다.

당시 《해방신문》은 이 력사적사변에 대해 이렇게 소리높이 전하였다.

《우리들은 이제야 진실로 전체 3천만 조선인민들이 걸 어가는 승리에 찬 거창한 총로선전에 확고부동하게 올라서게 되었다. ... 이것은 오로지 명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우리들만이 능히 달성할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 우리들은 얼마나 이일을 고대하고 주목했는가! 또한 이 력사적인 전환을 저어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들은 얼마나 혹심했는가! 제일 60만은 그를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야만잔다.》

참으로 총련의 결성은 제일조선인운동과 제일동포들의 운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오게 한 일대 사변이었다.

이때부터 제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전진하였고 제일동포들은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애국위업의 한길을 역세게 이어올수 있었다.

총련은 혁명발전과 정세변화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총련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역의 동포들에게 신념과 의지, 락관의 노래를 달아주시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력사의 모든 풍파속에서도 자그마한 로선상착오나 순간의 좌절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수령님께서 정해주신 주체의 길로만 곧바로 걸으며 힘있게 존엄있는 주체적인 해외교포조직으로 그 위력을 더욱 높이 떨쳐올수 있었다.

진정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제일조선인운동을 위기에서 구원해주시고 걸음걸음 이끌어주시신 제일동포들

의 삶의 은인이시고 자애로운 스승이시며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의 심장속에 영생하시는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오늘 총련은 사상도 령도도 막강도 위대한 수령님을 그대로이신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력사의 모진 격난을 뚫고 자기발전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주체111(2022)년 5월 28일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서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무궁한 힘으로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자》에서 각계각층 동포군중의 힘을 하나로 모아 제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확충하고 발전시켜주시어 총련의 기본임무로 밝혀주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이 력사적서한은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이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한 총적방향과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주체적애국운동의 백과사전적인 총서이며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영원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정녕 총련이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제일조선인운동은 자기의 영광에 찬 로정을 영원히 승리로 이어갈것이다.

지금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에 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주시어 이땅의 영광을 거머쥐고 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새 교복본본들을 보아주시어

지난 1월 1일 한 일군은 경에 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다.

주린이 걸려있는 소학교와 초급, 고급중학교 학생들, 대학생들의 새 교복본본들을 만족하게 보고계시던 경에 하는 그이께서는 정중히 인사를 올리신 일군에게 새로 만든 교복본본들이 다 좋은 것만큼 그 견본대로 교복을 성의있게 잘 만들어 우리 학생들에게 입혀야 하겠다고 이르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안는 일군에게는 잊지 못할 나날이 되 새겨졌다.

두해전 8월 학생들에게 교복을 다시 만들어 입힐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새 교복도안창작에 필요한 사진자료들까지 친히 골라 보내주시었고 지난해 8월에는 창작가들이 올린 도안들을 세심히 보아주시면서 학생교복도안들을 하나하나 선정하여 확정하시었다.

경에 하는 원수님의 이 력사적서한은 총련과 제일조선인운동이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단계를 벗어나 전면적발전기, 총련부흥의 새시대를 더 힘차게 열어나갈데 대한 총적방향과 투쟁과업, 그 수행방도를 전면적으로 밝혀준 주체적애국운동의 백과사전적인 총서이며 조국과 더불어 총련의 영원한 승리를 확고히 담보해주는 불멸의 기치이다.

정녕 총련이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나가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시는 경에 하는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제일조선인운동은 자기의 영광에 찬 로정을 영원히 승리로 이어갈것이다.

지금 총련인민들과 제일동포들은 제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을 위한 길에 쌓아올리신 철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경에 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제일조선인운동의 전면적발전을 위한 단계를 밟아주시어 이땅의 영광을 거머쥐고 있다.

본사기자 전영민

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에서는 아 결것도 주저할것도 없다고, 력사상 처음으로 아이들의 교복문제를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정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까지 합쳐 교복생산에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정공업부문에 막대한 자금을 지출하도록 은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일군이 지나간 일을 되새기며 감격을 금치 못하고있는데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우리 학생들에게 새 교복을 다 해입히면 정말 한시름을 뚫을것이다.》

순간 일군은 록이 메어올랐다.

정녕 경에 하는 그이의 심중에는 자식들을 잘 키워 내세우고싶은 마음쓰는 이 땅의 천만아버지들의 마음이 짝 찼었다.

일군에게는 환히 보이는것만 같았다. 온 나라의 거리마다 꽃송이마냥 활짝 피어난 우리 학생들의 모습, 그로 하여 더욱 밝아질 공화국의 모습이다.

이날 이른새벽 한 일군은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걸어오신 전화를 받게 되었다.

경에 하는 그이께서는 방금 평양시에서 시험생산한 젓가투를 풀어 맛보았는데 우유의 고유한 맛과 색이 잘 살아나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질적측면에서 미흡한 점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지적해주시었다.

사실 평양시에서 젓가투생산을 위한 설비제작이 본격화된것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3차전원회의가 있는 후였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전원회의에서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젓제품을 비롯한 영양식품을 공급하는것을 당의 정책으로, 공화국의 영원한 국책으로 수립할데 대하여 언급하시어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에 하는 그이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뜻을 받들고 평양시에서는 한달동안 여러 차례의 실험을 거듭하면서 마침내 새로운 젓가투생산설비를 제작하였고 첫 시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그런데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그 시제품젓가투를 친히 맛보시고 전화를 걸어오신것이다.

최승스러워하는 일군에게 경에 하는

본사기자



제일본조선인총련합회 제 25 차 전체대회에서 진행한 음악무용종합공연

2022년 - 인민사랑으로 마련된 행복의 제부들

탁월한 령도의 손길에 받들려

올해 공화국의 전진도상에는 류체없는 시련과 난관이 가로놓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대결소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의 정세는 극도로 격화되었고 재해성이상기후에 의한 엄청난 자연재해도 련이어 들이닥쳤다. 설상가상으로 건국이래 대동란이라고 할 수 있는 엄혹한 방역위기까지 조성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에서는 이러한 사상초유의 역경속에서도 세인을 경탄케 하는 기적과 변혁을 이룩하였다.

수도 평양에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인 송화거리와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가 일떠섰고 농촌살림집건설의 첫째 과업을 빛나게 관철하기 위한 투쟁속에서 온천군 금성리와 회령시 창호리를 비롯하여 도처에 현대적인 농촌살림집들이 일떠섰다.

또한 동해지구에 대규모단 새생산기지인 련포온실농장과 농장마을이 건설되고 김화군에 지방공업발전의 본보기 공장들이 일떠서 새로운 지방공업혁명의 봉화가 타올랐으며 대성산아이스크림공장, 해

주시좌양산생물공장, 룡수산생물공장, 순천메기공장, 자라직장 등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공장들이 수없이 건설되었다.

이 모든것은 인민을 위한 일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고 물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불보다 뜨거운 인민사랑과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정체이다.

지금도 공화국인민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해마다 평양시에 1만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이 인민과 한 약속이라고 하시면서 그 수행을 위한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숭엄히 우러르고있다.

그리고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작공식에 참석하시여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가슴뜨겁게 되새겨본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3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시고 현지를 돌아보시던 그날에는 보통문주변 강안지구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과 별도로 당중앙위원회가 직접 틀어쥐고 건설을 내밀어 완공하여 당과 국가를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고있는 각 부문의 로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에 떠받들려 평양시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라는 거창한 대건설전투가 벌어지는 것처럼 긴장한 속에서도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건설이 전개되게 되었으며 수도의 변화가 역

만장자들의것으로 되고있는 자본주의세상에서는 생각조차 할수 없는 사회주의전설, 또 하나의 평양전설이 태어나게 되었다.

세상에는 변화함을 자랑하는 거리들도 많고 호화주택들도 많다. 허나 평양의 송화거리에 일떠선 새거리, 새 살림집들과 우리식의 고유한 멋과 특색, 현대건축발전주세가 훌륭히 반영된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처럼 철두철미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으로 시작되고 인민을 위한 일에서는 만족을 몰라야 한다는 응지에 받들려 훌륭하게 완공된 인민의 리상거리, 행복의 별천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

하기에 새 살림집들의 주인공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런 훌륭한 새집에서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 정말 꿈을 즐겁게 울러나감으로 써 여기 분개연선지구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

주시려고 얼마나 마음쓰셨을가 하는 생각이 눈곱이 떨어뜨는것을 어쩔수 없습시다.》, 《집집의 구석구석에도 우리 원수님의 다심하신 사랑이 그대로 깃들어있어 언제나 따뜻한 우리의 집, 우리의 거리입니다.》...

인민이 터치는 격경의 목소리는 위대한 인민의 아버지께서 리는 다함없는 고마움의 찬가이다.

어찌 수도시민들만이 터친 사랑의 목소리였는가.

《오늘 우리 군에서 창조된 경험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하라는대로만 하면 가까운 앞날에 우리 힘, 우리 기술로 얼마든지 모든 지방들이 흥하고 소리치며 잘살수 있다는 배심을 굳게 해주었습니다.》

《우리가 고생끝에 주저앉기를 바라는 적대세력들이 기적초풍하게 생산정성화의 동음을 울리자 울러나감으로 써 여기 분개연선지구를 인민의 기쁨이 넘쳐나는 사회

주의락원으로 꾸려나가겠습니다.》

김화군의 새 전변에도 아무리 시련이 겹쌓인다 해도 인민들에게 철저히 필요한것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하며 그 사랑의 힘으로 사회주의의 전진을 다그쳐나가야 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신념과 의지가 집약되어있다.

5개년계획수행의 첫째 과업을 확정하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생활조건이 제일 어렵고 경제토대도 빈약한 김화군의 지방공업공장들을 번듯하게 꾸려 본보기로 내세우자고 하시면서 김화군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강력한 지휘와 과학기술력량을 꾸려주시고 공사정형을 수시로 알아보시며 필요한 조치들을 우선적으로 취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동해기술에 펼쳐진 또 하나의 온실바다-련포온실농

장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의 인민사랑이 안아온 우리식 농촌 문명창조의 거점

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중요한 몫을 맡아 수고가 많은 함경남도안의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생산공급하기 위하여 동부전선의 공군기지를 대규모온실농장으로 전변시킬것을 결심하시고 건설부지를 정해주셨을뿐 아니라 이미 중평온실농장건설에서 혁혁한 위훈을 세운 조선인민군 부대들에 또다시 영예로운 과업을 맡기셨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숙원을 기어이 풀어드릴 송고한 자각과 엄숙한 책임감을 간직한 인민군인들은 착공의 삼을 뜬 그날부터 230여일간의 치열한 백열전을 벌렸다. 그날 뜻밖에 덮쳐온 악성병마를 불굴의 정신력으로 이겨내면서 군건설자들은 철야공격전을 드세게 벌려 세세년년 덕을 입을 인민의 재는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펼친 공산주의리상촌을 일떠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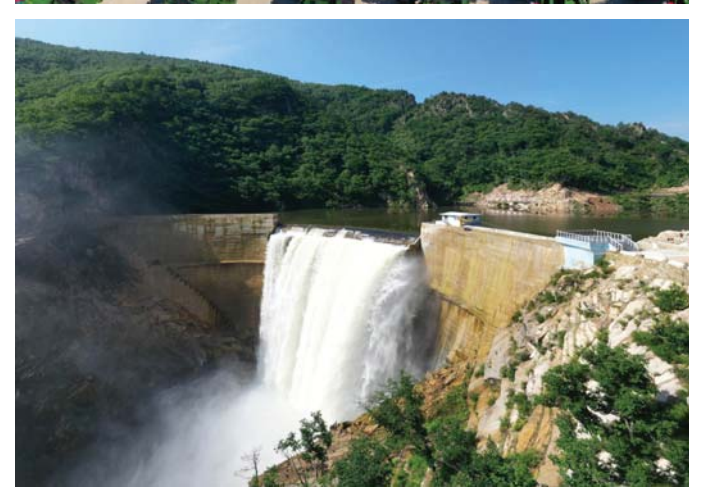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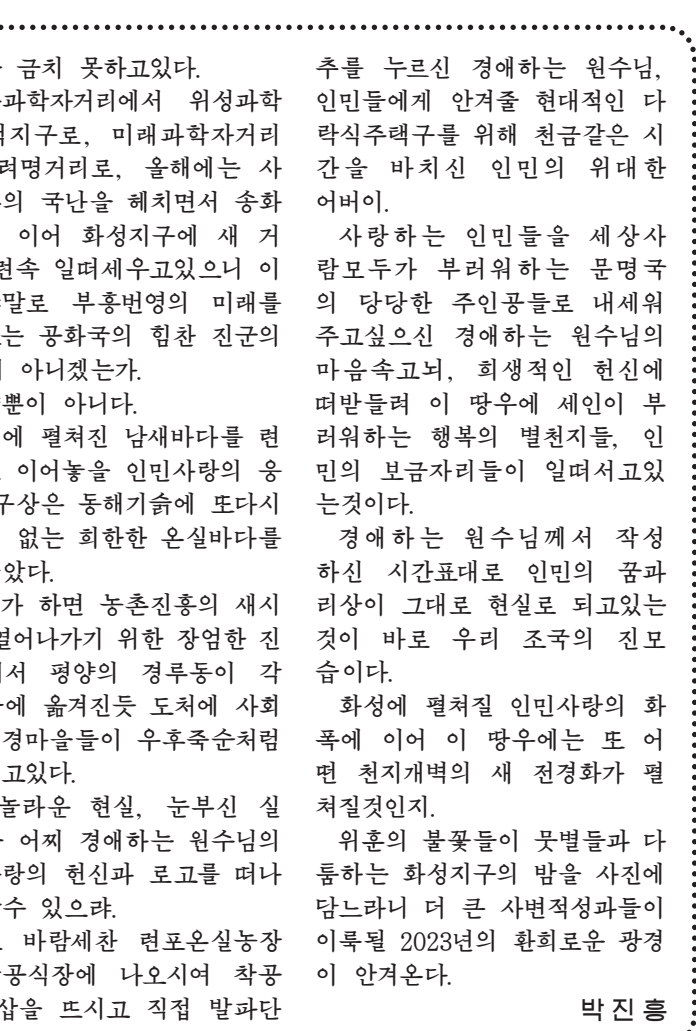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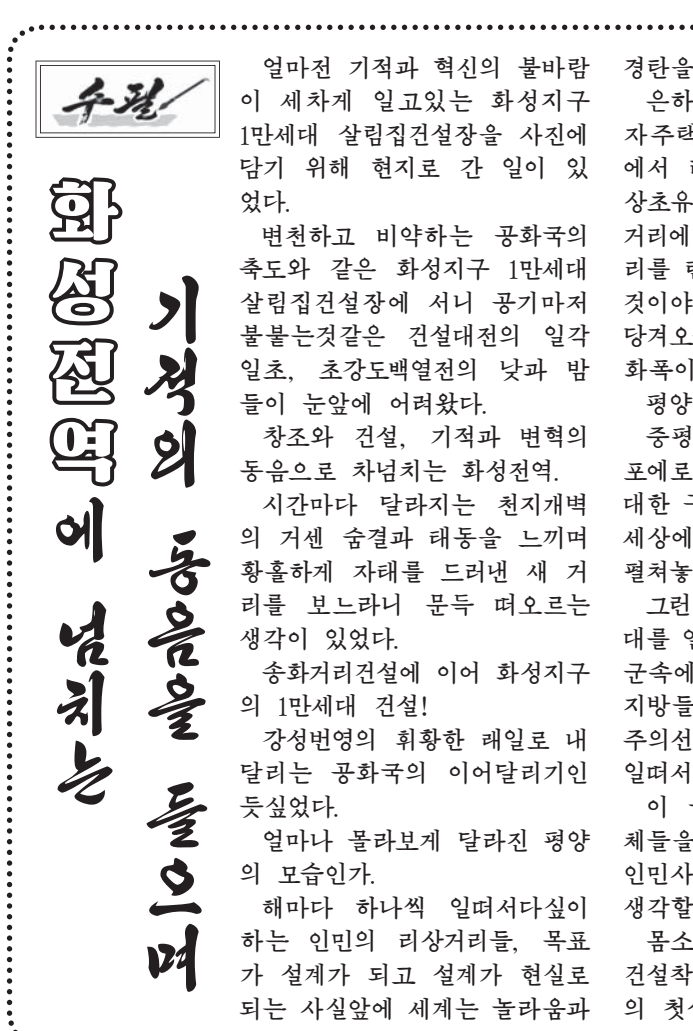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은 소학교,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대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새 교복에도, 전국의 어린이들에게 공급되는 표준화된 첫제품들에도 뜨겁게 어려여있다.

진정 국가의 모든 사업을 인민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복무로 일관시키고 위민헌신의 날과 달을 이어가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성스러운 력사를 끝없이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어 이 땅에서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꽃피어나고있는것이다.

하기에 공화국인민은 심장으로 말한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온 나라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라고, 그 품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다고... 지나온 한해려정을 승리의 자부심을 안고 감회깊이 추억하는 이 시각 온 나라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밝아오는 2023년에는 보다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갈 불타는 신념과 의지를 가다듬고 있다.

백광수



수필

화성전역이 넘치는 기적의 동음을 들으며

얼마전 기적과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고있는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들 사진에 담기 위해 현지로 간 일이 있었다.

변천하고 비약하는 공화국의 속도와 같은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장에 서니 공기마저 불붙는것같은 건설대전의 일각 일초, 조강도백열전의 낮과 밤들이 눈앞에 어려웠다.

창조와 건설, 기적과 변혁의 동음으로 차넘치는 화성전역.

시간마다 달라지는 천지개벽의 거센 숨결과 태동을 느끼며 황홀하게 자태를 드러낸 새 거리를 보느라니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송화거리건설에 이어 화성지구의 1만세대 건설! 강성변영의 휘황한 레일로 내달리는 공화국의 이어달리기인 듯싶었다.

얼마나 놀라보게 달라진 평양의 모습인가.

해마다 하나씩 일떠서다싶이 하는 인민의 리상거리들, 목표가 설계가 되고 설계가 현실로 되는 사실앞에 세계는 놀라움과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위성과과학자주택지구로, 미래과학자거리에서 려명거리로, 올해에는 사상초유의 죽난을 헤치면서 송화거리에 이어 화성지구에 새 거리를 련속 일떠세우고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부흥번영의 미래를 당겨오는 공화국의 힘찬 진군의 화폭이 아니겠는가.

평양뿐이 아니다. 중평에 펼쳐진 남해바다를 먼 포포로 이어놓을 인민사랑의 웅대한 구상은 동해기술에 또다시 세상에 없는 희한한 온실바다를 펼쳐놓았다.

그런가 하면 농촌진흥의 새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장엄한 전진군속에서 용자들과의 경주들이 각 지방들에 펼쳐진듯 도처에 사회주의선경마을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서고있다.

이 놀라운 현실, 눈부신 실체들을 어찌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사랑의 헌신과 로고를 떠나 생각할수 있랴.

물소 바람세찬 련포온실농장 건설작공식장에 나오시여 착공의 첫삽을 뜨시고 직접 발파단

추를 누르신 경애하는 원수님, 인민들에게 안겨줄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위해 친근같은 시간을 바치신 인민의 위대한 아버지.

사랑하는 인민들을 세상사 람모두가 부러워하는 문명국의 당당한 주인공들로 내세워주고싶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고뇌, 회생적인 헌신에 떠받들려 이 땅위에 세인이 부러워하는 행복의 별천지들, 인민의 보금자리들이 일떠서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작성하신 시간표대로 인민의 꿈과 리상이 그대로 현실로 되고있는것이 바로 우리 조국의 진보속이다.

화성에 펼쳐진 인민사랑의 화폭에 이어 이 땅우에는 또 어떤 천지개벽의 새 전경화가 펼쳐질것인지.

위훈의 불꽃들이 못뭇들과 다름하는 화성지구의 밤을 사진에 담느라니 더 큰 사면적성과들이 이룩될 2023년의 환희로운 광경이 안겨온다.

박진홍

인민이 터치는 고마움의 목소리

우리 세상은 노동자들의 세상

송화거리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 이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별도로 일이 없는 평범한 노동자인 제가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서 살게 될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송화거리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 이곳에서 살게 될 사람들에게 대한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별도로 일이 없는 평범한 노동자인 제가 이런 희한한 살림집에서 살게 될줄을 정말 몰랐습니다.

우리 집 문패에는 직포공의 이름이 새겨져있다

우리 집 문패에는 남편이름이 아니라 저의 이름이 새겨져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란 직포를 돌리는것뿐입니다. 그런데도 나라에서는 저를 공훈방직공으로, 사회주의애국공로자로 내세워주었고 경주동의

호화주택까지 안겨주었습니다. 직포공이 호화주택의 주인이 된 이 꿈같은 현실이야말로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우리 나라에서만 태어날수 있는 사랑의 전설입니다. 김정숙평양방직공장 직포공 리명순

농업근로자들도 복을 많이 받은 해

농촌진흥의 새시대가 열린 뜻깊은 올해에 우리 농업근로자들도 복을 많이 받았습시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나라의 주요목창지대인 황해남도에 수많은 현대적인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셨던것입니다. 사실 가을걷이시기에 제일 그리운것은 농기계였습

도시생활부럽지 않다

우리 고장은 세찬 금야강 바람이 몰아쳐 《방천마을》로 불리우던 고장이었습니다.

도시에 현대적인 살림집들이 일떠설 때마다 내가 나서자란 고향땅이지만 이곳을 떠나 도시로 옮겨갈 생각도 없지 않았습시다. 그러나 우리 농장에도 멋진 살림집들이 일떠서고 사회주의선경으로 희한하

재령군 삼지강농장 작업반장 리철수

금야군 룡농장 농장원 장명길

추약한 정쟁으로 얼룩진 한 해

2022년 온 한해 남조선의 정치무대에서는 권력과 정국주도권장악을 위한 정치세력들의 개싸움이 그칠새 없었다. 시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재난, 고통은 안중에도 없이 오직 추악한 정치적야욕실현

에 환강이 되어 날뛴 시정배들의 역겨운 추태는 과연 어땠는가.

정지안후속의 서막-선거대결전

올해 남조선정치권의 개싸움질은 회비극적인 양상과 치열함이 있어서 전례를 훨씬 능가하였다.

특히 《대통령》갑부정찰을 위한 남조선정치세력들의 대결은 그야말로 사생결단이였다.

남조선언론들이 평한 것처럼 선거대결은 시작부터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는 비방전이었으며 거기에는 부각된것은 《대통령》 후보라는자들의 정치도덕적저렴성과 귀퉁이하고 구린내나는 뒤생활뿐이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민심은 물론 외신들까지도 《이차피(차악의 후보)》를 뽑아야 하는 최악의 선거, 《올머저자먹기의 선거》,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진 역대 최악의 선거》, 《영화(기생

충)보다 더 생생하게 정치인들의 추잡한 면모를 보여준 권력쟁탈전》, 《패하는 사람이 죽게 되는(오징어 게임)대선》, 《여야후보가 서로를 조롱하고 악마화하는데 수개월을 보내며 가뜩이나 심각한 사회분열을 더욱 심화시킨 선거》 등도 야유조소하고 비난하였는가.

제편수 가림없이 잡아먹는 정치양동이들

권력을 쥐기 위해서라면 리도 도덕도 헌신짝처럼 제버리고 제편마저 마구 물어먹는것이 바로 《국민의힘》 패거리들이다.

《국민의힘》의 친윤석열과 들은 당권장악을 위해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제 배

남조선언론들과 전문가들이 《력대급 비호감대선》이라고 평한 《대통령》선거란 투구는 회세의 정치적야욕아, 회대의 도덕적저능아, 체신머리없고 막대한 불망중, 미신에 찌든 인간추물, 추악한 사대대국노, 무지막지한 폭군으로 악명높은 윤석열역도가 간신히 《대통령》갑부를 뒤집어쓰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일일지능은 아침에 있고 일년지능은 봄에 있다는 말처럼 윤석열역도의 당성은 앞으로 남조선 각계층에게 어떤 불행과 고통을 몰아오겠는가를 예상하기에 충분하였다.

특히 《국민의힘》것들이 당구약까지 뜯어고치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도 당규약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선출방법을 인정할수 없다고 끌고들면서 가져분신청을 법원에 무더기로 제기하고 윤석열패거리들과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종했다. 윤석열역도가 리준석을 《내부총질이나 하던 당대표》라고 비난하면서 리준석제거놀음에 앞장섰던 《국민의힘》원내대표라는자에게 손전화통보문으로 추어준 사실이 그것을 잘 말해준다.

한편 윤석열역도와 그 패거리들에 의해 당대표직을 박탈당하고 당원권리정지처벌까지 받은 리준석은 윤석열역도를 전두환군부파조독재에 비유하면서 반발해 나섰으며 법원에 직무소송을 제기하여 《국민의힘》 1차비상대책위원회구성을 무효화시키는 등 보수세력내부를 복잡하게 들쭉서놓았다.

특히 《국민의힘》것들이 당구약까지 뜯어고치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 후에도 당규약개정과 새 비상대책위원장 및 위원선출방법을 인정할수 없다고 끌고들면서 가져분신청을 법원에 무더기로 제기하고 윤석열패거리들과 치열한 법적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안의 친리준석파도 당이 권력의 사족밑에 정치적적수를 제거하는데 앞장서고있다. 리준석에 대한 처벌결정으로 리준석개인이 아니라 보수의 《자유》가 사라지게 되었다고 악명을 두루며 친윤석열파와 맞서고있다.

이러한 속에 새 당대표직을 차지하기 위한 파벌들사이의 알뜰도 날로 격렬해지고있다. 이미전부터 당권장악야욕을 품어왔던 전 《국민의 힘》대표는 202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이 가장 승격전망으로 될것이다. 《수도권》출신이 당대표직을 차지해야 한다고 하면서 당권 도전에 나서고있다.

이에 친윤석열파들은 그가 《국민의힘》에 입당하지 몇 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창당과 합당, 탈당 등을 8차례나 반복하면서 너무나 과도하게 변신하였다. 《국민의 힘》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을 당대표로 내세워야 한다고 하면서 적극 견제해나서고있다. 한편 《국민의힘》

안에서는 전 원내대표와 현 비상대책위원장 등 각 파벌들이 내세운자들이 새 당대표로 물망에 오르면서 당내의 대립과 갈등이 더욱 격화되고있다. 권력과 사리사욕을 위해 끼리끼리 모여 파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여야사이의 대결

력대로 한번도 순탄해본적이 없는 남조선의 여야관계이지만 올해처럼 열두달내내 개와 고양이관계가 되어 으르렁대며 물고뜯는 싸움을 벌린 때는 일찍이 없었다.

《대통령》선거이후 남조선정치흐름은 야당에 대한 윤석열역적패당의 정치보복과 그에 대한 야당의 강경대응의 연속이었고 그로 하여 남조선정치판은 하루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감사원》과 《검찰》, 《정보원》을 동원하여 전 《정권》관계자들을 《종북세력》, 《반헌법세력》으로 몰아대면서

구속하였는가 하면 소환조사와 사무실압수수색놀음을 벌리면서 박해하고 압박하고있다. 물론 이 정치보복의 칼질이 이전 집권자라하는 것은 더 말할 여지도 없다.

또한 《더불어민주당》대표가 련루된 부정부패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사건에 관계된 《더불어민주당》대표의 측근인물들을 체포 및 구속하고있다. 지어 이전 집권자가 임명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공공기관 우두머리들이 정책추진에 장애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자신사리를 강박하고 이를 받아

민생은 뒤켠에 쫓겨치고 권력쟁탈과 당리당락을 위한 추악한 대결로 날과 달을 더럽히는 남조선의 정치시정배들의 개싸움질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러한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기에 남조선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혐오는 저주와 분노로 폭발하고있다. 《정치공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외면정쟁 버리는 여야》, 《이대로 못 살겠다》, 《윤석열퇴진!》... 이것이 남조선통치배들의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평이며 확고한 립장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물지 않자 《감사원》을 동원하여 집중감사를 벌리거나 각종 부정부패혐의에 걸려 《검찰》에 넘기고있다. 이 살기엔 정치보복에 야당 역시 《비열한 야당과 피행위》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다음해에 예산안작성문제를 놓고 여야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더욱 고조되고있다.

민생은 뒤켠에 쫓겨치고 권력쟁탈과 당리당락을 위한 추악한 대결로 날과 달을 더럽히는 남조선의 정치시정배들의 개싸움질은 오늘 극도에 달하고있다.

이러한자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회에 밝은 미래가 있을수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하기에 남조선정치권에 대한 민심의 환멸과 혐오는 저주와 분노로 폭발하고있다.

《정치공간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민생외면정쟁 버리는 여야》, 《이대로 못 살겠다》, 《윤석열퇴진!》... 이것이 남조선통치배들의 정치시정배들에 대한 민심의 평이며 확고한 립장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이러다 전쟁난다! 대북적대정책 중단! 미군은 떼나라!》

- 《2022 자주평화대회》 진행 -



지난 11월 26일 남조선에서 《2022 자주평화대회》가 진행되었다.

《민주로총》, 《겨레하나》, 《전국여성농민회총련맹》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사회단체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날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12시부터 서울 통산에 있는 《대통령실》 주변 삼각지역에 모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윤석열역적패당을 규탄하였다.

참가자들은 《대북적대정책 폐기》, 《종속적인 《한미동맹》 폐기》, 《《한미군사동맹》 반대》 등의 구호들을 웨치며 투쟁기세를 올렸다. 《전국여성농민회총련맹》

의장은 대회에서 한 기본발언에서 《미국은 약화되는 저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대결을 부추기며 신냉전체제를 가속화시키고 윤석열(정부는 미국 의 패권정책에 추종하여 대북압박에 몰두하며 조선반도를 전쟁위기에 빠뜨리고있다. 《한일관계개선》을 핑계로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까지 열어주고있다.》고 하면서 《미군이 이 땅에 들고

있어있는한 평화와 통일, 민중생존권은 없다》, 《윤석열(정부는)의 전쟁책동을 막고 미군을 몰아내고 지긋지긋한 미국의 예측과 굴종의 역사를 끝내자.》고 웨치었다.

이어 여러 단체대표들의 발언이 있었다.

《금속로조》 부위원장은 《로동자는 구조조정, 로동개혁, 산업재해 등으로 고통받고 청년들은 거리리 내몰리고있는데 여기에 윤석열(정부는) 전쟁불안의 실제적 공포까지 감내하라고 한다.》고 하면서 역적패당을 단죄하였다. 한편 《민주로총정전국련합》 수석부위원장, 《겨레하나》 사무총장, 《미군이 지참수연구소》 소장은 《윤석열(정부는)에 의해 전쟁위험은 고조되고있다. 《력사정의를 위해, 평화를 위해 《한미군사동맹》을 전면철폐해야 한다.》, 《이 땅에서 미군을

몰아내야 평화가 온다.》고 주장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미국의 패권정책, 친미사대대국 윤석열(정권)과 단호히 맞서지 않고서는 민생도, 평화도, 이 땅의 통일도 실현할수 없다.》고 하면서 반공화국적대정책철폐와 남조선미국합동군사연습의 영구중지, 《한미일동맹》해체, 《보안법》폐지 등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날 각계층 시민단체들은 서울 통산에 출발하여 서울역, 남대문을 거쳐 서울시청에 이르는 대규모행진을 진행하는것으로 《2022 자주평화대회》를 끝마쳤다. 본사기자

암흑의 땅 남조선에 또다시 초 불태가 호르고있다.

날로 더해만지는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악정과 사대대국행위, 전쟁대결책동에 분노하여 남조선 각계층이 항거의 초불, 투쟁의 초불을 추켜든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윤석열역도가 집권한 이후 남조선은 더욱 처참한 인간생지옥으로 화하였다.

《대통령》버거지를 뒤집어 쓰기 전부터 《주 52시간로동제》는 비현실적인 제도이므로 철폐해야 한다고 하면서 《주 120시간로동》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들고나온 윤석열역도이다.

이러한자이기에 권력의 자리에서 앉은 다음에는 《최저임금개혁》과 《비정규직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변경과 폐지 등 친재벌, 반로동정책으로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여지없이 짓밟고있다.

농민을 역시 윤석열역도의 반인민적악정으로 생의 막바지에서 해매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도는 《돈돈한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에 대해 떠들고있다.

어디 이뿐인가. 《녀성가족부패제》를 비롯한 역도의 녀성혐오정책으로 극심한 사회적참극화가 조성되고 녀성들의 사회적저지는 더욱더 험악해졌으며 역도가 추진하는

그래서 추켜든 초불이다

《교육개혁》놀음은 교육분야의 부익부, 빈익빈을 극도로 조장하고있다.

특히 윤석열역도의 추악한 친미친일사대매국책등으로 경제는 날로 더욱 엉망이 되고있고 민생악화는 그늘을 알수 없게 되었으며 《적폐검찰》과 국유노수매거리를 내세워 벌리는 파쇼독재통치로 남조선은 눈이 있어도 볼수 없고 입이 있어도 말할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들을수 없었던 암흑의 군정이었다. 이러한 속에 윤석열역적패당이 미친듯이 버리는 전쟁대결책동은 정세를 전쟁정경으로 몰아가고있다.

그야말로 윤석열역적패당의 반민족적, 반인민적책동으로 하여 남조선은 파멸의 진멸속에 헤어나올수 없게 갇혀 속이 빠져들고 새 정치, 새생활, 참다운 삶에 대한 인민들의 지향과 녀념은 여지없이 짓밟혔다.

하기에 로동자, 농민, 녀성, 청년, 중, 고등학교 학생 등 남조선 각계층은 《이대로 살수 없다》, 《국민이 죽어간다》, 《윤석열퇴진!》을 웨치며 투쟁의 초불을 추켜든것이다. 이 분노의 초불의 대화가 불행과 고통, 재앙을 몰아오는 원흉인 윤석열역적패당을 쓸어버리고야말것이라는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투쟁으로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 남조선의 《민주로총》 겨울철 총파업투쟁에 돌입 -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여 남조선로동계가 들고일어났다.

지난 11월 22일 《국회》앞에서 윤석열역적패당의 친기업 및 반로동정책을 반대하는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 《민주로총》은 이어 산하 《전국건설로동조합》 소속 조합원 4만

여명의 참가밑에 서울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대규모집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11월 24일 《민주로총》 산하 《공공운수로동조합 화물련대》본부는 《안전운임제》(운전수들에게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기업에 벌금을 부과

하는 제도)를 법으로 고착시킬것을 요구하여 무기한 총파업투쟁에 진입하였다.

이날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출정식을 열고 파업시작을 선포한 《화물련대》는 《안전운임제 영구화》를 비롯하여 로동자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의 기발을 내리지 않을 립장을 표명하였다.

《화물련대》의 총파업에 《철도로동조합》, 《비행장항공안전본부》 등 운수부문 로동자들이 련대파업투쟁을 벌리겠다고 호응해나섰다.

학교비정규직로동자들과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병원의 간호원들도 로동안전과 산업재해방지대책,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을 요구하는 총파업투쟁에 걸기해나섰다.

남조선로동계의 이러한 반 《정부》투쟁은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로동정책에 대한 쌓이고쌓인 분노의 폭발이다.

지금 남조선로동자들의 처지는 윤석열역적패당의 반인민적로동정책으로 인

하여 최악의 상태에 처하여있다.

역적패당은 재벌들의 리익만을 옹호하면서 로동자들의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유린하고있다.

최근에도 윤석열역적패당은 《안전운임제》를 요구하는 로동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안전운송운임을 지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조항》을 삭제한 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하기에 《화물련대》는 투쟁으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킬 의지를 표명하며 총파업에 걸기해나섰다.

지금 로동자들의 대중적인 반 《정부》투쟁에 당황망조한 역적패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대응》을 떠들며 파쇼적폭기로 로동자들의 총파업을 진입하러 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기 그지없는것이다. 생존의 권리, 참다운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한 남조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그 무엇으로써도 가로막을수 없다. 박남수



안경이 처음으로 발명된것은 13세기말 말이라고 한다. 인류력사에서 안경은 인간의 삶의 질적수준을 한 단계 상승시킨 획기적인 발명품으로 평가되고있다. 사람의 눈을 보호하고 시력을 돕기 위해 발명된 안경은 세월이 흐르면서 대중화되었으며 기호품, 사치품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오늘 형태와 색깔, 재질과 기능, 사용목적에 따라 제작된 도수안경,

색안경, 보호안경, 전두안경 등 다종의 안경들이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에 도움을 주고있다. 안경은 색깔과 모양, 크기와 형태에 따라 사용자의 인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킨다. 어떤 안경을 착용하는가에 따라 같은 사람도 고집스럽거나 유하게 또는 촌스럽거나 세련되게 그리고 사납거나 인자하게와 같이 완전히 다르게 비쳐지게 하는것이 안경의 매력이다. 어떤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다양하게 달라지는 인상효과때문에 안경은 일반사

람들은 물론 배우들의 필수 도구로도 되고있다. 안경에는 해당 인물의 사상과 감정, 성격과 취미, 지향과 요구같은것도 담겨진다. 때문에

《바이든안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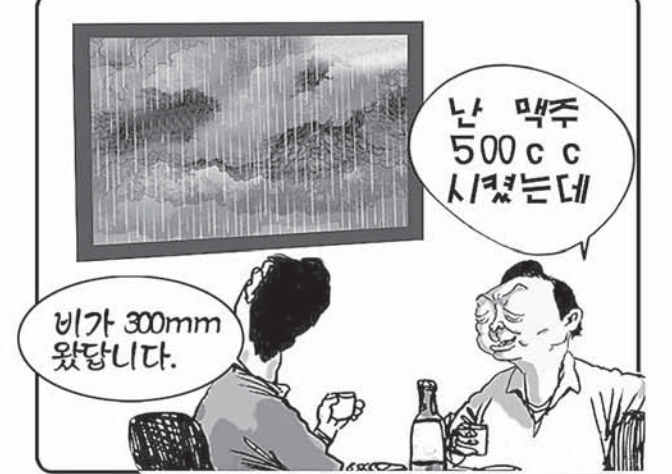
에 서방이나 남조선언론들에는 안경을 놓고 사용자의 정치적동향이나 지적수준, 신분과 견능, 태도와 행동에 예측하는 기사들이 종종 실리곤 한다. 실제로 《유신》특재자는 당시 남조

근세의 무도수안경으로 짝 짝이 빼세노과 표표한 낫새, 간사하고 악아빠진 질을 가리워보려 했다고 한다. < > 지난 11월 24일 윤석열역도가 어느날 북침전쟁 무기전시장에 새다른 안경

을 끼고 나타났다. 그것은 미국전투기조종사용 안경로서 바이든이 서울을 행각하면서 주자에게 하사하고 이른바 《바이든안경》이라고 한다. 윤석열역도의 수족노릇을 하는 《대통령실》것들은 이것이 《동맹의 증표》,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의미한다며 법적대였다. 하지만 세인들은 미국의 핵전략폭격기 《B-1B》가 기여들어 북침전쟁공중훈련을 벌린 직후에 역도가 《바이든안경》을 쓰고 무기전시장을 돌아치면서 다른 결론을 내

리고있다. 역도의 혐오스러운 행위에서 미국을 하네비처럼 섬기는 추악한 친미매국노, 친략정권!에 들든 미국상권을 본따 핵전쟁도발에 날뛰는 무모한 호전병, 양기식기차관에 썰대로 썰들어 얼굴모양도, 몸가짐도, 하는 짓거리도 미국상권을 따라하려는 회세의 인간추물의 추악한 정체를 꿰뚫어보고있다. 《바이든안경》은 윤석열역도야말로 이 땅의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 화근덩어리라는것을 다시금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만화 《민심》



락랑박물관을 찾아서 (7)

락랑문화시기의 세련된 금속세공술

금속세공술의 발전상을 보여주는 유물전시구획에 들어선 우리에게 남경최책임강사는 이렇게 말하였다.

《락랑문화시기의 유물들 가운데는 금, 은, 청동 등 금속세공품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는 도금법, 실링기법, 보석박이법 등과 같은 매우 세련된 금속세공술을 활용하여 만든 우수한 걸작품들도 있습니다.》

도금법은 수에 금분이나 은분을 혼합하여 아말감을 만들고 다음 그것을 금속제품에 바르고 가열하면 수은은 증발하여 날아가고 금막 또는 은막이 남아서 되는 기법이다.

남경최책임강사의 말에 의하면 금속제품의 장식미를 높여주는 것은 물론 녹이 쓰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효과적

인것으로 하여 도금법은 락랑문화시기에 널리 적용되었다고 한다.

당시 실링기법과 보석박이법도 널리 적용되었는데 이 기법들은 현대에 와서도 널리 쓰이고있다고 한다.

이밖에도 금속이 늘어나는 성질을 리용하여 마치같은 것으로 때려서 얇은 금속판을 만드는 일종의 단조기술인 판금법이 널리 적용되었다.

전시된 유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락랑문화시기의 금속세공술의 발전상에 대한 상세한 표상을 가질 수 있었다.

석암리9호무덤에서 나온 순금으로 만든 룡무늬금피고리는 앞면의 변두리에 가는 금실로 수를 놓듯이 테두리장식을 하고 그안에 크고 작은 수백개의 금씨락을 물

어서 창공을 달리는 어미룡과 6마리의 새기룡을 형상화하였는데 요소마다 40여개의 푸른 보석을 박아넣어 장식미를 더욱 돋구었다.

특히 희귀한 금속으로 만든 은술잔은 당대의 금속세공술의 발전면모를 뚜렷이 보여주고있었다.

결편과 밑바닥부분을 장식



장숙영

높은 체육기술, 고상한 경기도덕품성 발휘

제 52 차 예술인 체육대회 진행

공화국의 청춘거리 룡구경기관에서 제52차 예술인체육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영화예술부문, 무대에술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 체육대회에서는 룡구, 배구, 탁구, 바둑당기, 씨름, 체육

유희오락 등 다양한 종목의 경기들이 벌어졌다.

체육대회에 참가한 단체들의 분렬행진과 박력있고 경쾌한 음악에 맞추어 펼쳐진 예술인들의 아름답고 우아한 물동은 시작부터 경기장의 분위기를 돋구었다.

선수들은 경기마다에서 평시에 연마하여온 체육기술과 강한 조직성, 규율성, 고상한 경기도덕품성을 남김없이 발휘하였다.

집단주의정신과 완강한 인내력을 발휘한 영화예술부문이 바둑당기경기에서 우승하였다.

체육대회에서는 무대에술 부문이 종합 1등을 쟁취하였다.

제52차 예술인체육대회는 문학예술혁명의 새로운 불길

을 지켜올리기 위한 창작창조활동을 활발히 벌려나가고 있는 문화예술부문 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의 드높은 열의와 체육열기를 잘 보여주었다.



12월의 절기들은 대설과 동지가 있다.

대설은 한해치고 눈이 가장 많이 내리는 절기라는 말로써 예로부터 대설에 눈이 많이 내리면 다음해에 풍년이 들고그해 겨울은 푸근할것이라는 말이 전해지고있다.

동지는 겨울에 다 이르렀다는 의미이다.

동지날에는 한해가운데서 해가 제일 늦게 뜨고 일찍 진다. 따라서 낮이 제일 짧고 밤이 길다.

이 시기 우리 선조들은 겨두어들이던 날을 상하지 않게 잘 보관하고 씨름인한 밀보리밭에 거름을 내었으며 다음해 농사에 쓸 농기구들도 손질해두었다.

이 절기들에 우리 선조들이 즐겨 먹었던 음식들로서



를 익반죽하여 새알심을 만들어 죽속에 넣고 꿀을 타서 찹쌀떡으로 삼았다고 전해지고있다.

동지날에 팔죽을 쑤어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서로의 화목을 도모해온것은 오랜 세월 전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풍습이었다.

이 시기 진행된 민속놀이들은 어린이들의 제기차기, 공차놀이와 장차기 등을 들수 있다.

올해의 대설은 12월 7일이고 동지는 12월 22일이다.

12월의 절기와 민속

삼관을 단죄한 김룡검 (2)

룡검은 자기의 손을 거처 버슬것에 나선 덕손이가 삼관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하기에 룡검은 지난해 봄 동경에 먼저 내려가서 임금 말을 차비를 빈틈없이 갖춰놓으라는 상관의 분부를 받고 덕손을 찾아올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책은을 가득 채운 덕손의 행차를 따라 동경거리를 벗어나는 룡검은 그때 일이 생각키워 얼굴을 붉혔다.

덕손은 동경에 내려온 룡검을 은인이라면서 껍뻑이 대 해주었다.

거처지도 제가 든 동원에서 가까운 관소의 제일 좋은 방을 내주고 심부름꾼들은 물론 음식재주가 남다른 녀도 불러주었다.

그리고 임금 말을 차비를 제가 직접 부하들에게 위임하고 그 실정형태도 날마다 알아보고 조처하곤 하였다.

그 덕에 룡검은 별로 하는 일없이 대접만 받으며 편히 지낼수 있었다.

그런데 며칠 지내면서 보니 덕손의 정사가 눈에 몹시 서늘했다.

덕손의 손발노릇을 하는 구실아저들이 백성들을 돌보는게 아니라 그들의 재물을 마구 빼앗는 늑대질에 개림이 없었던것이다.

그것을 처음 목격한 때가 지난해 초여름이었다.

그날 룡검은 평복차림으로 먹고 놀이를 사러 시전거리에 나갔었다. 잡곡전을 지나치러

는데 좁쌀이며 콩알은 잡곡들을 내다놓고 팔려 하는 사람들과 흥정을 하는 자색옷차림의 중년사나이가 눈길을 끌었다.

룡검은 첫눈에 그가 관가의 아전들을 거느린 호장임을 알아보았다.

나라법에 호장은 특색이 아닌 자주빛의 옷을 입게 되어있었다.

값을 흥정하던 호장은 제두에 서있는 명주옷차림의 똥똥보에게 잡곡전의 쌀을 똥똥 사라고 일렀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똥똥보가 자기 가까이에서 서성대던 사나이들에게 락짓을 하자 사나이들은 잡곡전에 달려들어 잡곡자루들을 전부 끌고온 마차에 실었다.

호장이 잡곡자루를 가득 실은 마차들을 끌고 사라지자 잡곡전의 사람들은 땅을 치며 아우성을 쳤다.

룡검이 놀라 그 사람들에게 알아보니 사연은 이러했다.

시전거리에는 찍하면 돈 많은 부자를 뒤에 단 호장이 나타나는데 그럴 때마다 그 자는 마음이나 곳에 가서 물건값을 흥정했다. 물건값이 비싸면 비싸대서 빼앗으니 할 수없이 물건은 팔려서 사람들은 값을 낮춰 부르기 마련이었다.

그러면 호장은 싹값으로 그 물건들을 전부 뒤에 달고나온 부자를 시켜 사들이게 하고는 거기가 크게 한몫을 챙겨 가

는 손님들도 다 국법을 어긴 죄인이라며 호주머니속의 돈을 똥똥 털어버리게 하였다.

그때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장은 금주령을 어긴 장본인이면서 주인내외에게 매를 안기고도 모자라 돈이나 갈만한 물건들은 똥똥 팔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술집은 하루 아침에 알려지진새가 되었다.

룡검은 술집주인내외에게 동정이 갖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다.

후장은 술을 사먹으러 온 손님들도 다 국법을 어긴 죄인이라며 호주머니속의 돈을 똥똥 털어버리게 하였다.

그때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호장은 금주령을 어긴 장본인이면서 주인내외에게 매를 안기고도 모자라 돈이나 갈만한 물건들은 똥똥 팔아내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술집은 하루 아침에 알려지진새가 되었다.

룡검은 술집주인내외에게 동정이 갖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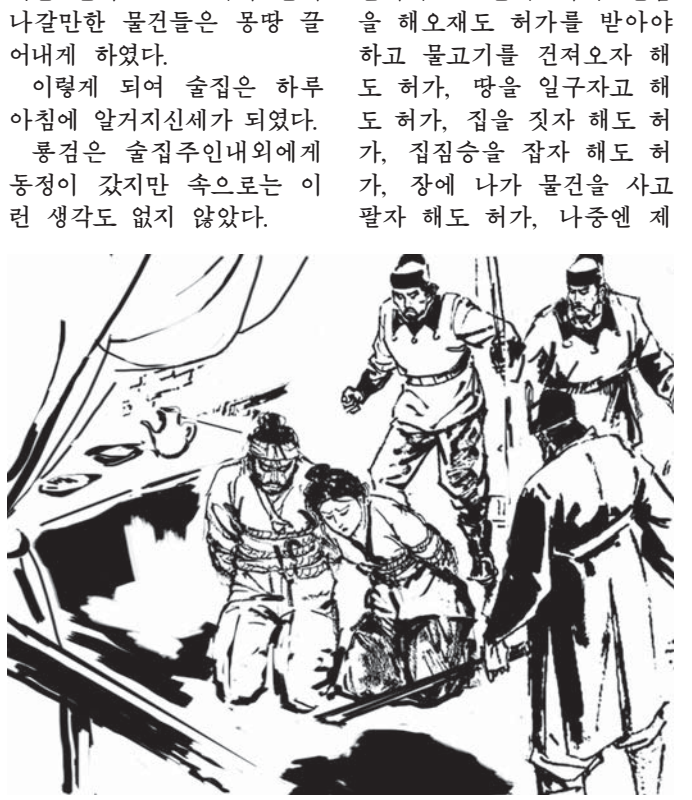
후장은 술을 사먹으러 왔다는 소리에 안주인이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이틀전 대낮에 호장이라는 사람이 라졸들을 달고 술집에 나타났다.

호장은 관가에서 금주령이 내린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술을 판다면서 다짜고짜 술집주인내외를 묶게 했다.

금주령이 내렸다는 말은 술집주인에게 있어서 듣느니 처음이었다.

사실상 나라에서는 그런 법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흰것도 관가에서 겁다고 하면 들을것이랴고 여겨야 하는 고을에서 호장이 내린 금주령은 곧 나라의 법이나 같은것으로 되었다.



관가에서 금주령을 내렸다면 그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물론 이 집에는 안된 일이지만 도깨비장물같은 술이 없어진다면 여사모사로 좋은 것이다.

룡검은 꺼내놓았던 돈을 도루 걸어넣을수 없어 안주인의 손에 들려주며 말했다.

《너무 마음쓰지 마시우. 그러다 뵈시오. 이제 무슨 수가 생겨 잘살게 되겠지요.》

바깥주인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부르짖었다.

《잘살게 된다구요? 거기는 통 여기 문세를 모르는것

가 심은 곡식을 걸어들이자고 해도 허가를 받아야 한대요.》

룡검은 별로 놀람지 않았다.

《그러야 관가를 찾아가면 어련히 허가를 해주지 않으리요.》

그 말에 주인내외는 기가 막힌듯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윽고 바깥주인이 입을 열었다.

《대체 어디서 오셨수?》

룡검은 은근히 속수이 뒤를렸다. 평복차림이긴 해도 본색이 량반이 분명한 자기앞에서 관가를 비난하는 이 집

주인들의 말이 불쾌하게 들렸던것이다.

룡검은 주인내외가 어찌는지 두고보고싶어 관가에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라고 둘러쳤다.

《등잔불뿔이 어둡다고 거긴 관가에 매어살면서도 관가 하는것을 통 모르고있소그러. 관가의 분부를 일핏 들으면 사리에 맞고 지당해보이지요. 백성살이를 고르게 하고 산천을 보호한다고 번치르르하지요. 허나 부대기를 일주도록 허가를 해달라고 하면 엄청난 돈을 내라 하고 돈을 내지 못하면 관가를 우습게 안다고 매를 안긴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관가법이란게 백성들을 죽이자고 하는것이 잘살게 하자는것이예요?》

룡검은 주인내외의 말이 잘 믿어지지 않았다.

과직에 귀양살이까지 했던 아버지의 말로를 돌이켜보며 청명하게 살겠다는 결심을 품고 버슬것에 나섰을 덕손이가 그럴수 없었던것이다.

이건 다 돌아가며 못된것을 일삼고있는 아전무리들이 빚어낸 폐단일것이다.

룡검은 항간에서 돌아가는 백성들의 원망소리를 덕손이에게 알려주어 시급히 민심을 바로잡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룡검은 부리나케 관가로 향했다.

동헌트락에 들어서니 마침 퇴물위에 신들이 있었다. 덕손이 신는 목이 긴 목화외 손이 새어 나오는것 보아 덕손이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것같았다.

룡검은 저도 모르게 방안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최우수감독들

금강산체육단 권투감독 박철준

고하고 권투종목기술을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경기상황에 맞게 대응전술을 잘 활용하는것으로 하여 경기형세를 역전시

키는 능력있는 감독으로 평가되고있다.

지난해 진행된 태양절경극만경대상체육경기대회, 공화국선수권대회에서 박철준감독이 담당한 선수들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집고 영예의 1위를 쟁취하였다.

하여 박철준감독은 2021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대 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되었다.

본사기자

천연기념물 모란봉규화목

성하였던 절치식물이 화석으로 된것이다.

원래는 여기 석화된 나무들이 곧추 서거나 넘어져있는 것들로 화석임을 이루고있었다. 그것은 당시의 기후가 아열대성기후에 속하고 키가 큰 나무들이 이 일대에 산림을 이루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난 시기 평양과 일부 지역에서 나무화석이 알려졌지만 모란봉규화목처럼 자라던 모습이 생동하고 큰것은 없다. 현재 남아있는 규화목의 직경은 가장 큰것이 70cm이상 되는것도 있으며 가로자름면에서 세포구조와 년륜이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규화목과 거의 같은 층류에서는 고사리류, 소철류, 쇠뜨기류, 은행류, 송백류의 다양한 식물화석들이 나왔다.

규화목은 매우 곧으며 년륜이 똑똑하다.

고생물학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해 이 규화목이 소나무류형이라는것이 밝혀졌다.

모란봉규화목의 년륜과 세포의 구조는 고생대, 고한경, 고기후 등의 연구에서 중요한 자료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감기에방에 좋은 입가심료법

—소금을 리용한 입가심—

아침과 저녁에 소금물로 목안과 입안을 함수하여 항상 깨끗이 하면 좋다.

—고려약재를 리용한 입가심—

과의 흰 부분 20g과 생강 5~10g을 잘게 썰어 600ml의 물에 넣고 물이 절반으로 될 때까지 끓인 후 여기에 마늘 10g 또는 절인 살구를 조금 넣어 먹거나 그 물로 입

가심한다.

—차를 리용한 입가심—

차를 리용한 입가심은 감기에방에서 대단히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차는 극히 적은 량도 돌림감기비루스의 감염을 막는 훌륭한 작용을 한다.

본사기자

평고기완자탕

음식감으로 평가슴살 150g, 일 때 닭알을 푼것 15g, 사자고추 20g, 농마가루 10g, 다진 파 10g, 다진 마늘 3g, 간장 10g, 참기름 1g, 깨소금 1g, 후추가루 0.3g을 준비한다.

평가슴살은 다져서 농마가루, 닭알을 두고 완자를 빚어 삶아놓는다.

사자고추는 완자크기의 편으로 썬다.

단 남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평고기완자와 사

자고추편을 볶다가 완자살은 국물을 부어 끓인다.

완자가 거의 익으면 다진 파와 마늘을 두고 깨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맞춘 다음 그릇에 담아낸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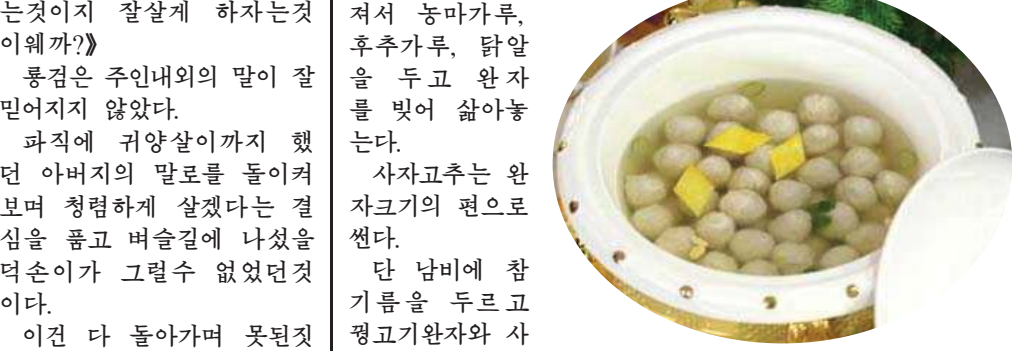
속담의 유래 제 외에 넘어간다

린색하기로 소문난 어느한 고을원이 아전에게 단단히 일러두었다.

《손님이 오면 너희들은 내 손짓을 보아 주인상을 차려올려라. 내가 이마를 쓸면 상등 손님이요 코를 문대면 그는 중등 손님이니라. 내가 수염을 쓸면 아랫손님이니 그리 알고 그에 맞게 주인상을 내오너라.》

손님으로 찾았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끝에 고을원의 이마를 찬찬히 들여다보다가 낮은 소리로 말하였다.

《이보게, 이마에 벌레가 앉았다.》

고을원이 어망결에 이마를 이루면자자 아전은 그가 상등 손님이니라. 내가 수염을 쓸면 아랫손님이니 그리 알고 그에 맞게 주인상을 내오너라.》

손님으로 찾았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알았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